

研究論文

# 도교 『음부경』의 사상

김 백 희\*

I. 머리말	<참고문헌>
II. 『음부경』의 사상	<국문요약>
III.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도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 『음부경(陰符經)』은 3~4백자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도교 경전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적은 분량의 이 경전에 관한 수많은 주석이 현존하는 것을 보더라도, 도교의 전통 속에서 『음부경』의 전통적 애독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음부경』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전해진다. 『음부경』 또는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이라고 불리는 이 도교의 경전은 처음에 『음부(陰符)』, 『음부경』, 『태공음모(太公陰符謀)』 등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전국책(戰國策) 진책』에서는 『태공음부(太公陰符)』, 『사기(史記) 소진열전』에서는 『주서음부(周書陰符)』 등으로 불리다가, 육조(六朝) 및 당(唐)나라 시기에 “황제(黃帝)”라는 두 글자가 더해져서 『황제음부경』으로 칭하였다. 그 후 명(明)나라 시기에 편집된 『정통도장(正統道藏)』에 여러 학자의 주석본이 수록되었는데, 모두 『황제음부경』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동양철학 전공(cursiveness@aks.ac.kr).

『음부경』이 중요한 도교의 경전으로 인식된 것은 육조(六朝)시기 부터이며, 당송(唐宋)시기에 이르면 더욱 중요시 되어서 송(宋)나라 시기에는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朱熹)까지도 『음부경고이(陰符經考異)』라는 저술을 내기에 이른다.<sup>1)</sup>

『음부경』의 저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국시대에 주(周)나라 초기의 인물인 강태공(姜太公)의 저작이라고 하지만 이는 가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시기에 이전(李筌)은 황제(黃帝)의 저작이라고 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송대의 황정견(黃庭堅)과 같은 사람은 이 책이 전국시대의 저작인 고서로 볼 수 없으며, 당(唐)나라 시기 이전(李筌)의 위작이라고 보았다. 청(淸)대의 요제항(姚際恒)은 북위(北魏)시기의 도사 구겸지(寇謙之)가 찬술한 위작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삼국시대 조조(曹操)와 제갈량(諸葛亮) 및 갈현(葛玄)의 주석문이 남아 있고, 동진(東晉)시대 왕희지(王羲之)의 석각 『음부경』을 보건대, 이 책이 북위의 구겸지가 찬술한 경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전국시대의 역사서에 분명한 명칭과 내용의 언급이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대체로 이 책은 선진(先秦)시기의 저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음부경』은 전국시대에 저술된 저작으로서 강태공이나 황제의 이름에 가탁한 책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존하는 『음부경』의 판본은 비교적 차이가 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당나라 저수량(褚遂良)이 남긴 400여자의 판본이다. 또 하나는 역시 당나라 시기의 이전(李筌)이 전한 300여자의 판본이다. 이 경은 비록 짧은 글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천도(天道), 천지인(天地人), 생살(生殺), 기시(機時), 도적(盜賊), 생극(生剋), 복장(伏藏) 등으로서 사용하는 글자나 어휘가 모두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 경의 깊은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석하였다. 현존하는 주석은 50여 가지 상이한 주석본이

1) 『음부경』에 관한 서지적 정보와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글로는 다음의 저작이 있다. 王明, 「試論“陰符經”及其唯物主義思想」, 『道家和道教思想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李申, 「陰符經的哲學」, 『陰符經全譯』(中國: 巴蜀書社出版社, 1992); 蕭登福, 「黃帝陰符經考證及探義」, 『黃帝陰符經今註今譯』(臺北: 文津出版社, 1996). 본고의 『음부경』에 관한 서지적 사항은 위 세 글을 요약한 것이다. 『음부경』에 관한 주요 주석서를 정리하고 표점을 찍어서 최근에 출판한 책으로는 周止禮·常秉義(編), 『黃帝陰符經集注』(中國戰劇出版社, 1996)가 있다. 이 책은 역대 『음부경』 주석서 중에서 편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16명의 『음부경』 주석가들이 남긴 서적을 다루고 있다. 이 경전의 영역본은 Legge, James, *The Sacred Books of China: The texts of Taoism*, Vol. II, New York: Dover, 1962가 있다.

있다.)

본고의 목적은 『음부경』의 사상을 몇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철학적으로 음미하는데 있다. 가급적이면 전통시대의 주석서에 의존하지 않고 경전의 본문에 입각해서 『음부경』의 사유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 경전은 도교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도교 이론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방대하면서도 복합적인 도교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부경』에는 도가(道家)의 사상을 기준으로 병가(兵家), 음양가(陰陽家), 오행가(五行家), 『역전(易傳)』 등의 사상이 골고루 섞여 있다. 『역전』의 사유논리와 유사한 점은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고 별도의 논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음부경』의 사상

### 1. 천도(天道) : 천지자연의 법칙, 상생과 상극

중국의 전통적 우주생성론에서 천지자연은 기본적으로 기(氣)로 이루어지며, 기의 운행에 따라 만물 변화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며 생멸의 작용이 지속된다. 기의 운행 작용은 음양(陰陽)이라는 두 가지 양태로 나뉜다. 주지하듯이 음양은 일월(日月)·명암(明暗)·상하(上下)·수축과 팽창·적극성과 소극성·따스함과 시원함·습기와 건조함 등 상대적으로 대립하는 속성을 지니면서도 서로 의존관계에서만 존재하는 상관적 대대(待對)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음양론과 발생적 뿌리는 다르지만 전국시대부터 천지자연의 기를 다섯 가지 양태로 설명하는 오행론이 있다.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라는 다섯 가지 물질적 속성을 지닌 기의 양태는 각기 고유한 성질을 지니면서도 서로 변화의 순서와 질서에 따라 상생·상극의 관계를 유지한다. 천지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음양이라는 두 가지 기의 범주 또는 다섯 가지 오행의 범주에 포괄된다.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천지자연의 운행은 이런 음양·오행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3)</sup>

2) 주석본의 대부분은 『정통도장(正統道藏)』 속에 포함되어 있다. 본고의 『음부경』 저본은 李釜, 『黃帝陰符經疏』(55冊, 洞眞部玉訣類, 閩)로 삼는다.

『음부경』은 이와 같은 중국 전통시대의 천도관(天道觀) 또는 우주·생성론을 기본적으로 계승한다. “스스로 그렇게 운행하는 법칙(天道)은 고요하므로, 천지자연의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다. 천지자연의 법칙이 변화운행에 스며들어 음과 양이 서로 이겨 자라난다. 음과 양이 서로 밀어주어 변화가 운행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스스로 그렇게 운행하는 법칙은 어길 수 없음을 알아서, 이에 따라 생성·소멸과 상생·상극의 법칙을 제정한다.”<sup>4)</sup> 천지자연 속의 만물들은 서로 상생·상극의 관계 속에서 생성과 소멸의 운행 작용을 지속해 간다.

사람도 천지자연의 만물 속에 하나일 뿐이다. 인간세상의 모든 일들도 상생·상극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음양의 상생·상극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천지자연의 법칙을 인식하여 세상의 일에 대처해야 한다. “지극히 고요한 법칙은 음률(音律)과 역법(曆法)으로도 헤아려 그것에 부합할 수 없다. 이에 신기한 개별 사물들이 생겨나니 이것이 삼라만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팔괘와 갑자 등의 산술(算術)과 음양 상생상극의 법이 밝게 만물의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5)</sup> 천지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의 내재적 법칙과 힘에 의해 고요히 여여(如如)하게 운행을 지속하므로 천지자연의 온갖 만물이 이를 본받아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하며 변

3) 선진시기의 철학 중에 오행설은 『서경(書經)』 「홍범(洪範)」편에 처음 나오는데,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을 위해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하고 있다. 이 편은 지은이를 알 수 없고, 대체로 전국 초기의 작품이다. 오행의 학설은 여기에서 처음 보인다. 「홍범」에서 말했다. “첫째의 오행: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불이며, 셋째는 나무, 넷째는 쇠붙이, 다섯째는 흙이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적셔 주고, 불은 위로 오르며, 나무는 굽어지거나 곧으며, 쇠붙이는 뜻대로 모습을 바꿀 수 있고, 흙은 곡식을 심어 거둘 수 있다. 내려가면서 적셔 주는 것은 짠맛이고, 위로 타오르는 것은 쓴맛이고, 굽어지거나 곧은 것은 신맛이고, 뜻대로 모습을 바꾸는 것은 매운 맛이며, 곡식을 심어 거두는 것은 단 맛이다(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咸,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이런 초보적 오행론은 점차 이론화되어 우주생성론의 규모를 갖춘다. 한대(漢代)의 동증서는 오행설을 더욱 발전시켜 『춘추번로(春秋繁露)』 「오행상생(五行相生)」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지의 기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나뉘어 음양이 되며 구별되어 사계절이 되고 배열되어 오행이 된다(天地之氣, 合而爲一, 分爲陰陽, 判爲四時, 列爲五行).” 이후로 오행설은 중국의 우주생성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強兵戰勝演術章)」, “自然之道靜, 故天地萬物生. 天地之道浸, 故陰陽勝. 陰陽相推, 而變化順矣. 是故聖人知自然之道不可違, 因而制之.”

5)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至靜之道, 律曆所不能契. 爰有奇器, 是生萬象. 八卦甲子, 神機鬼藏. 陰陽相勝之術, 昭昭乎進乎象矣.”

화의 길을 간다. 음양의 기는 스스로 밀어주고 당기며 운행하고, 팔괘의 변화와 사계(四季)의 운행도 천지자연의 법칙을 본받아 상생·상극의 작용을 지속하는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이 스스로 운행함에는 작위적 주체(主體)가 없고 배타적 주재(主宰)도 없으며 개별자의 개입에 따른 일탈(逸脫)도 없다. 이와 같이 스스로 생멸(生滅) 변화의 운행을 여여하게 지속해가는 모습을 『음부경』에서는 “정(靜: 고요함)”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천지자연의 속성을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다.

『음부경』에 따르면 천지자연의 법칙에 따라 온갖 사물이 생성되고 소멸한다. 그 법칙은 인격성·주재성·배타성·작위성 등의 속성을 지니지 않고 무위자연하게 만물의 생멸(生滅)을 지속케 하므로 고요하다고 말한다. 천지자연은 그 자체로 보면 음양의 기(氣)로 이루어지며, 그 음양의 기가 상생·상극의 작용을 하면서 만물을 생성·소멸시킨다. 즉 천지자연과 온갖 사물과 인간이 모두 음양의 기로 이루어진다. 이는 『노자』를 위시하여 도가가 주장하는 일반적 우주·생성론과 다른 입장이 아니며, 도교의 경전인 『음부경』이 기본적으로 도가의 세계관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생살(生殺) : 생성과 속살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온대지방의 천지자연은 봄과 여름에 만물이 생성되어 자라고, 가을과 겨울에 열매를 맺고 죽는다. 봄과 여름에는 생성의 기운이 주(主)가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속살(肅殺: 가을의 쌀쌀한 기운이 결실을 이룬 뒤 초목을 말라죽게 하는 것)의 기운이 주가 된다. 봄과 여름에는 따뜻한 양(陽)의 기운이 성하여 만물을 기르며, 가을과 겨울에는 차가운 음(陰)의 기운이 성하여 만물을 죽인다.<sup>6)</sup> 다시 봄과 여름이 오면 생성하고 가을과 겨울이 오면 속살의 기운에 죽어간다. 이런 생성과 소멸의 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불변적 법칙이며,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성하고 또 천지자연이 그것을 죽이는 천도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음부경』에서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천

6) 石和陽, 『陰符經註』 「天生四章」, “天之道, 春夏生而秋冬滅, 是生於天殺於天也.”

지자연의 법칙이다”<sup>7)</sup>라고 하였다. 생성의 작용과 숙살의 작용은 거스를 수 없는 천지자연의 필연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의 사람들은 이 필연적 현상 속에 내재하고 있는 천도의 법칙을 파악하고 본받아서 생성과 숙살의 법칙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필연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그 필연성의 세계에 존재를 내어 맡기고, 욕망의 일탈과 과잉이 없이 필연성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스런 순리가 된다.

생살(生殺)은 천지자연이 운행하는 생성과 숙살의 필연법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지자연의 생성작용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는 은혜롭게 여기지만, 숙살의 작용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없지 않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음부경』에서는 생(生)과 사(死)를 서로 의존적인 현상이며, 뉘 수 없는 상극(相剋)이면서 또한 상생(相生)·상성(相成)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삶은 죽음의 뿌리이다. 죽음은 삶의 뿌리이다. 은혜는 해로움에서 생기고, 해로움은 은혜에서 생긴다.”<sup>8)</sup> 전국시대의 도가는 천지자연 속의 온갖 사물을 모두 한 기(氣)가 변화된 것이라고 여겼다. “사람의 생명은 기가 모인 것인데, 기가 모이면 생명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그러므로 천하는 하나의 기로 통할 뿐

7) 『음부경』 「부국안민연법장(富國安民演法章)」, “天生天殺, 道之理也.”

8) 「강병전승연술장」, “生者, 死之根. 死者, 生之根. 恩生於害, 害生於恩”. 여기서 “恩生於害, 害生於恩”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것이 어떤 때는 도리어 상대방에게 해로운 일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 것이 어떤 때는 도리어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할 수도 있다. 『노자』 58장에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다. “정치가 모자란듯하면 백성이 순박하고, 정치가 영리한듯하면 백성이 순박함을 잃는다. 재앙이여! 복락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락이여! 재앙이 의지하는 바이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이 세상에는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정상적인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은 다시 요사스러운 것이 된다. 인간이 이런 대대법적인 도를 잃고 헤맨 적이 아주 오래되었다. 이리하여 성인은 방정하지만 남을 자르지 않고, 청렴하다고 해서 남을 깎아내려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고, 지혜의 빛이 빛난다고 해서 남에게 빛내려고 자랑하지 않는다(其政悶悶, 其民淳淳, 其政察察, 其民缺缺,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 孰知其極, 其無正, 正復爲奇, 善復爲妖, 人之迷, 其日固久, 是以聖人方而不割, 廉而不劌, 直而不肆, 光而不耀).” 삶과 죽음이 상관적 짝으로 엮여 있듯이, 천지자연 속의 인간세상에서 재앙과 복락도 영원불변의 실체를 갖지 않고 늘 변한다. 인간세상을 이끌어가는 성인은 하나의 가치에 집착하여 순수의 일색으로 세상을 도색하지 않는다. 천지자연이 영원불변의 고정적 실체가 아니고 상관적 대대법칙에 따라 운행을 지속하듯이, 인간세상도 저 여여(如如)한 천지자연처럼 상관적 얽힘 속에서 변화해 간다. 이것을 깨달아 세상의 정치에 적용하는 것이 무위자연(無爲自然)의 현실화인 무위지치(無爲之治)이다. 『음부경』의 기본적 사상도 이런 도가의 사유를 닮았다.

이다.”<sup>9)</sup> 은혜와 해로움도 상극이면서 동시에 상생·상성의 관계이다. 속살의 죽음이 없으면 생성도 있을 수 없다. 죽음을 인생의 현장에서 늘 새기며 사는 사람은 죽음을 미루어두고 망각하며 사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우주의 필연적 법칙인 생성과 속살의 상관적 의존성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삶임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

생성과 속살이 시행되는 천지자연의 운행 속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저절로 그렇게 운행해 가는 우주변화의 필연적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천도(天道)가 우주만물에 사사로이 베푸는 은혜도 아니며, 사사로이 가하는 해로움도 아니다. 그저 무심(無心)하게 이루어지는 천지자연의 필연적 법칙일 뿐이다. 인간의 삶도 생성과 은혜에 집착할 일이 없다. 무심한 마음으로 생성과 속살이라는 천지자연의 필연적 법칙의 운행 속에 몸과 마음을 두고 때와 기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런 삶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천지자연은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어 없지만 만물은 모두 그 은혜를 입는다. 그리하여 빠른 우레와 매운바람에도 놀래 꿈틀거리지 않음이 없다. 지극한 즐거움은 마음의 본성에 남음이 있고, 지극한 고요함은 마음의 본성에 티 없이 깨끗함을 지니게 한다. 천지자연은 (자기방식대로 운행하여) 지극히 사사롭지만, (만물 모두 그 이로움을 얻는) 쓰임은 지극히 공정하다. 만물을 장악하여 제어함은 기(氣)의 운행에 있다.”<sup>10)</sup> 이 구절은 『노자』 5장에서 말하는 “천지불인(天地不仁)”<sup>11)</sup>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노자』의 이 말은 천지자연은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서 사사로움이 없이 만물을 생성·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온갖 사물은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죽어간다. 천지자연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를 상정하고 천지자연을 인간중심으로 보는 사유가 자리할 수 없다.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성인도 세상을 다스릴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백성을 대하지 않는다. 무심하게 자연의 필연적 법칙이 운행하듯 무위(無爲)로 다스리는 것이 성인이다.

9) 『莊子』 「知北游」, “人之生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故曰通天下—氣耳.”

10)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天之無恩, 而大恩生. 迅雷烈風, 莫不轟然. 至樂性餘, 至靜性廉. 天之至私, 用之至公. 禽之制, 在氣.”

11) 『노자』 5장, “天地不仁, 以萬物爲芻. 狗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천지자연은 어질지 않으므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강아지로 여기고, 성인도 어질지 아니하므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강아지로 여긴다).”

생성과 숙살의 이치·법칙은 천지자연속의 모든 만물이 따라야하는 필연적인 도(道)이다. 사람이 인간세상의 일을 수행할 때 당연히 이 천도(天道: 천지자연의 법칙)를 본받아야 한다. 천지자연의 법칙을 잘 본받아 시행하면 인간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생성과 숙살의 때와 기미를 아는 것과 같다. “천지자연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이며, 사람의 마음은 천지자연에서 부여받은 기미이다. 그러므로 천지자연의 법칙을 세워서 인간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천지자연이 죽이는 기미를 발동하면 별들의 자리가 바뀐다. 땅이 죽이는 기미를 발동하면 움츠렸던 용과 뱀들이 밖으로 나온다. 사람이 죽이는 기미를 발동하면 천지자연의 만물이 뒤집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천지자연과 사람이 함께 발동하면 온갖 변화의 기초가 정립된다.”<sup>12)</sup> 하늘의 별들이 자리가 바뀌는 것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생(生: 발생)·장(長: 성장)·수(收: 결실)·장(藏: 감춤 또는 저장)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만물이 생성·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움츠렸던 용과 뱀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런 땅에 사는 동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한 해의 생(生)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죽이는 기미를 발동하면 인간세상의 현실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여 사회구조가 바뀌거나 왕조의 변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마치 자연 현상에서 산이 무너지거나 바다가 범람하는 등의 대변화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이는 기미’를 발동하는 것은 반드시 천지자연의 법칙에 부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세상의 삶에서 바람직하게 온갖 변화의 기초가 정립된다. 사람의 일은 반드시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부합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과 사람이 함께 기미를 발동’하는 것이다.

### 3. 시기(時機) : 때와 기미

천지자연과 사람이 함께 기미를 발동하는 것은 천지자연이 운행하는 시기(時機, 때와 기미, 또는 알맞은 때의 기미)에 맞아야 한다. 사람의 일은 반드시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부합하게 해야만 하는데, 자연의 필연적 법칙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일에 이어질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때와 기미이다. 그러므로 “천지자연의 본성

12) 『음부경』 「신선포일연도장(神仙抱一演道章)」, “天性, 人也. 人心, 機也. 立天之道, 以定人也. 天發殺機, 移星易宿. 地發殺機, 龍蛇起陸. 人發殺機, 天地反覆. 天人合發, 萬變定基.”



은 사람의 본성이며, 사람의 마음은 천지자연에서 부여받은 기미이다. 그러므로 천지자연의 법칙을 세워서 인간사를 정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천지자연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존재론적으로 연속성을 갖는다. 이는 마치 『중용』 1장의 “천지자연이 부여한 것을 본성이라 한다(天命之謂性)”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들린다. 천지자연이 만물을 생성하면 만물은 자연스레 그 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본성은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개조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천지자연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런 기미이다. 이런 마음은 현실의 구체적 일을 만나서 발동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발동은 보통 사사로운 마음으로 작용하며 드러난다. 『음부경』은 기미를 중시한다. 전체성으로서의 천지자연은 개별자로서의 만물과 존재론적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개체화된 만물과 차이를 갖는다. 천지자연에서 부여받은 본성은 본래 고요하지만 그 본성의 기미가 움직여 드러나면 마음이 발동한다. 이때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천지자연의 본성에 맞는 기미를 잡아서 그것에 부합하게 발동해야만 비로소 일을 바르게 이룰 수 있다. 그래야만 “천지자연의 법칙을 세워서 인간사를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기미의 ‘기(機)’는 여기서 글자의 의미상 석공의 일종인 쇠뇌의 발사 장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원천적 의미에서 천지자연과 사람의 일이 움직여 발동하는 최초의 변화 또는 기미(幾微)라는 뜻이 나온다.<sup>13)</sup> 천지자연의 움직임에 부합하는 때와 기미를 알아서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음식을 때에 맞추어 먹으면 몸의 모든 뼈가 편안해지고, 사람의 행위가 자연의 기미에 맞게 이루어지면 만물의 변화가 모두 편안해진다.”<sup>14)</sup> 여기서 때는 천지자연의 운행에서 드러나는 사계절로서 따뜻하고 서늘하며 차갑고 더운 상황에 맞게 일상의 삶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미는 생성과 숙살의 운행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천지자연이 생성과 숙살의 운행 작용을 할 때 이 기미를 살피서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은 천지자연의 운행에서 드러나는 기미를 살피 그것에 부합하게 인간사를 이루어 간다. 사람의 의지가 개입하여 천지자연의 운행을 변화시키거나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저 여여(如如)하게 저절로 천지자연의 운행이 지속

13) “기(機)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징조(幾), 알맞은 때(時機 또는 時宜) 등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14) 『음부경』 「부국안민연법장」, “食其時, 百骸理. 動其機, 萬物安.”

되어 간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 자체는 결코 숙명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천지자연 속에서 그 어떤 개별자도 영원불변의 본질이나 자기동일성을 갖지 않는다.

끊임없는 변화의 법칙만이 천지자연의 필연적 진리이다. 인간세상의 삶 속에서 사람은 천지자연의 도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 즉 사람은 바로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 속에서 때와 기미를 살피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생성과 속살의 이치를 장악해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천지자연의 생성·소멸(속살)의 기미를 몰래 취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자는 이 도리를 얻어서 몸을 굳건히 하고, 소인은 이 도리를 얻어서 쉽게 부리어 목숨을 단축시킨다.”<sup>15)</sup> 사람이 천지자연의 때와 기미를 약탈하듯이 몰래 취하고 그 법칙을 본받는 것은 천지자연의 법칙이 은밀하고 틈이 없으며 저절로 변화·운행하되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 천지자연의 신령함이 신령스러운 것만 알고, 신령스럽지 않음이 신령함의 원인이 됨을 알지 못한다.”<sup>16)</sup>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과 사물들이 신령하고 기이한 것은 알아도, 그 일과 사물이 신령하고 기이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천지자연과 인간이 함께 발동하는 것과 같이 신령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신령함이 된다. 따라서 『음부경』은 “해와 달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큰일과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일정한 처리방식이 있다. 성인의 공적이 천지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생기고, 자연의 신령한 이치도 이 법칙에서 나온다.”<sup>17)</sup>고 하였다. 이는 생성과 속살이라는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을 파악해야만 인간사의 제반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인간세상을 잘 다스리는 성인의 공적은 바로 천지자연의 운행에서 생성과 속살의 때와 기미를 장악하고 인간사에 적용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생성·속살의 때와 기미를 살피서 장악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살피서 장악하지 못한다. 때와 기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마땅한 때를 잃어서 헛되이 움직이게 되고, 알맞은 기미를 잃어서 자기 멋대로 생성과 속살을 세상에서 저지르게 된다. 때와 기미를 잃은 자의 세상일이 바르게 될 수 없으니, 일이 원만하

15) 『음부경』 「부국안민연법장」, “其盜機也, 天下莫能見, 莫能知. 君子得之固躬, 小人得之輕命.”

16) 『음부경』 「부국안민연법장」, “人知其神而神, 不知不神而所以神.”

17) 『음부경』 「부국안민연법장」, “日月有數, 大小有定. 聖功生焉, 神明出焉.”

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까지도 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 도리를 얻어서 몸을 굳건히 하고, 소인은 이 도리를 얻어서 쉽게 부리어 목숨을 단축시킨다”고 한 것이다. 군자는 이 도리를 얻어서 난세를 평정하며, 소인은 이 도리를 그릇되게 얻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기 자신도 해를 당한다.

천지자연의 기미는 은미하고 비밀스러워서 쉽게 인지하거나 추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사람은 천문과 지리의 현상을 성스럽게 여기지만, 나(군자 또는 성인)는 자연운행의 알맞은 때와 만물의 변화법칙을 밝게 헤아려 안다.”<sup>18)</sup> 그리고 “못 사람은 어리석음으로써 성스런 도를 헤아리지만, 나는 어리석지 않은 마음으로 성스런 도를 헤아린다. 못 사람은 그 성스런 도를 신기한 것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 성스런 도를 신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못 사람들은 어리석게 성스런 도에 미혹하여) 물속에 빠지고 불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sup>19)</sup> 천문(天文)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해, 달, 별, 바람, 비, 우뢰, 번개 등의 자연현상과 그 변화양상을 모두 말한다. 지리(地理)는 땅위에서 벌어지는 산, 바다, 하천, 호수, 우물, 부엌, 방, 광물(鑛物), 초목, 들짐승, 날짐승, 벌레 등의 자연물들과 그 자연현상을 모두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천문과 지리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을 모두 신령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숭배하려고하지만, 그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군자(성인)는 그것을 신비스런 존재로 숭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깨달은 사람은 그 이치를 장악하여 인간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어리석은 소인들은 천문과 지리의 신령함을 숭배하고, 나아가 그것에 미혹되어 결국 자신의 몸을 물과 불 같은 자연현상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지혜로운 군자는 천문이나 지리의 현상 속에서 천지자연의 도리를 살펴서 인간사에 적용하고 대업을 성취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군자의 차이는 천문과 지리의 변화현상에서 그 이치·법칙으로 바르게 사태를 파악하여,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때와 기미에 맞게 인간사의 온갖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여부(與否)에 있다.

18)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強兵戰勝演術章)」, “愚人以天地文理聖, 我以時物文理哲.”

19)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人以愚虞聖, 我以不愚虞聖. 人以奇其聖, 我以不奇其聖, 沉水入火, 自取滅亡.”

## 4. 복장(伏藏) : 그릇된 욕망을 눌러 감춤

사람이 천지자연의 기미를 살피서 인간세상의 모든 일에 대처할 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의 본성이 움직여 여러 가지 감정으로 드러난다. 이런 감정의 다양한 형태를 칠정(七情: 모든 인간의 감정을 포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중국사상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 있으면 그 기미의 변화가 일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살피게 되고 내 마음도 헤아리게 될 수 있다.

『음부경』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 반드시 자신의 감정과 의식을 숨기도록 권한다. 자신의 속을 숨기는 요체는 마음의 욕심을 누르고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남들에게 자기 마음의 기미를 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에는 익숙함과 서툰움이 있으니,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몸의 아홉 구멍에서 나오는 사악함은 입·귀·코의 세 가지 중요한 곳에 있으니, 이로써 움직임과 고요함을 부릴 수 있다.”<sup>20)</sup> 사람의 몸에서 아홉 구멍이란 눈·귀·코·입·생식기·항문 등의 9개 구멍을 말한다. 입·귀·코는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일이 가장 많은 것이므로 9개 구멍 중에서 3개의 요처라는 의미로 삼요(三要)라고 하였다. 『노자』 12장에서는 “다섯 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다치게 한다”<sup>21)</sup>고 하였다. 이 모든 구멍은 사람의 마음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통로를 말한다. 마음은 몸의 9개 구멍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어 사라지기도 하며, 즐거워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은 밖의 사물에 이끌리어 생겨나고, 밖의 사물에 이끌리어 소멸하니, 그 기미는 사물을 보는 눈에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래서 마음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때 외부의 사물에 꺼들리어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면 천지자연의 기미를 살필 수 없게 되고, 인간세계의 일에 대처할 경우에 시기(時機: 때와 기미)의 합당함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외부세계와 교류하는 9개 구멍을 잘 단속하여 외부의 사물에

20) 『음부경』 「신선포일연도장」, “性有巧拙, 可以伏藏. 九竅之邪, 在乎三要, 可以動靜.”

21) 『노자』 12장,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22)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心生於物, 死於物, 機在目.”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내 마음이 휘둘리면 인간세상의 일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없다. 마음이 외부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꺼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아야만 삶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너그러워져서 천지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 수 있으니, 외부세계의 사물에 얽매이거나 꺼들리지 않는다. “지극한 즐거움은 마음의 본성에 남음이 있고, 지극한 고요함은 마음의 본성에 티 없이 깨끗함을 지니게 한다. 천지자연은 (자기방식대로 운행하여) 지극히 사사롭지만, (만물 모두 그 이로움을 얻는) 쓰임은 지극히 공정하다. 만물을 잡아서 제어함은 기(氣)의 운행에 있다.”<sup>23)</sup> 마음이 외부세계의 사물에 얽매이거나 꺼들리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천지자연의 무위자연(無爲自然)한 운행에 몸과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다.<sup>24)</sup> 『음부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즐거움은 마음이 스스로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며, 외부의 사물에 욕심을 내어 그것에 꺼들리지 않아서, 저절로 넉넉한 여유를 갖는 것이다.

마음이 천지자연의 운행에 따라 무위자연하게 살면 마음 속에 외부의 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지 않고, 또한 인간세계의 사물에 대해 탐욕이 자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이루게 된 경지로서의 지극한 고요함은 마음의 본성에 티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게 한다. 눈과 귀와 같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내용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속의 헛된 욕망을 제거하면 본래 자기의 속에 내재하고 있던 무한한 힘이 발현된다. 이를 『음부경』에서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눈 먼 이는 잘 듣고, 귀가 먼 이는 잘 본다. 명리(名利)에 이끌림을 끊고 사물의 근원에 집중하면 쓰임이 열 배가 된다. 삼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여 살피면 군사를 운용하는데 쓰임이 만 배가 될 것이다.”<sup>25)</sup> 눈이 먼 사람은 당연히 사물을 볼

23)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至樂性餘, 至靜性廉. 天之至私, 用之至公. 禽之制, 在氣.”

24) 동진(東晉)의 연명 도장은 이런 경지를 다음과 같이 시(詩)로써 읊은 것이 있다. “우주변화의 풍랑 속에 내 몸을 내어 맡기니, 기쁨 것도 없고 슬픔 것도 없으라. 생명이 다할 때를 맞아 기꺼이 다하리니, 다시 더 홀로 걱정할 일 없도다(縱浪大化中, 不喜亦不懼. 應盡便須盡, 無復獨多慮.)” 陶潛, 『陶淵明集』 「形影神」.

25) 『음부경』 「강병전승연술장」, “瞽者善聽, 聾者善視. 絕利一源, 用師十倍. 三反晝夜, 用師萬倍.” 『장자』 「거협(胥篋)」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을 끊고 지혜도 버리면 큰 도둑은

수 없으므로 저절로 외부의 아름다운 색과 사물에 이끌리어 꺼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마음이 오로지 듣는데 주의를 집중하여 타고난 듣는 능력이 온전히 발휘된다. 귀가 먼 사람도 외부세계의 여러 가지 소리에 미혹되지 않으므로 마음 속의 귀가 열려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눈이 오색(五色)에 꺼들리고, 귀가 오음(五音)에 이끌리어 마음이 어지러이 미혹에 빠지면 결국은 사물의 참모습을 보고 듣지 못하며, 천지자연의 이치를 터득할 수 없다. 마음이 미망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면 세상의 삶에서 몸을 망치고 또 하는 일마다 그르치게 된다. 그러므로 외부세계의 명리(名利)에 이끌림을 끊고 사물의 근원에 집중하며, 열린 마음의 눈과 귀로 인간세상의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진다. 심지어 이런 눈과 귀를 열린 마음에 기초해서 군사(軍師)를 운용하는데 적용하면 쓰임이 만 배가 될 것이다.

##### 5. 도적(盜賊) : 천지자연의 도를 훔침

『음부경』의 도(盜)와 적(賊)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인간세상의 암적 존재인 도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천지자연의 생성과 속살이라는 자연법칙을 몰래 살피고 천지만물의 자원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

없어진다. 옥과 구슬을 던져 깨버리면 줌도둑도 생기지 않는다. 어음을 태우고 도장도 부숴버리면 백성은 소박해진다. 되를 쪼개고 저울을 분질러 버리면 백성은 다투지 않는다. 온 세상에 성인의 법을 모두 없애버리면 백성은 비로소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옥를 흘려버리고 피리와 거문고를 태워 없애며, 천제음악가인 사광의 귀를 막아 버리면 비로소 온 세상의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듣는 힘을 지니게 된다. 화려한 무늬를 없애고 천리안을 지닌 이주의 눈을 풀로 붙여버리면 비로소 온 세상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보는 눈을 지니게 될 것이다(故絕聖棄知大盜乃止。擄玉毀珠，小盜不起。焚符破璽而民朴鄙，掎斗折衡而民不爭。殫殘天下之聖法，而民始可與論議。擢亂六律鑠絕竽瑟，塞師曠之耳，而天下始人含其聰矣。滅文章，散五采，膠離朱之目，而天下始人含其明矣。)"

춘추시대 진(晉)나라 대부이면서 음악가인 사광(師曠)은 본래 맹인이 아니었다. 그는 음악에 심취하여 음악의 진수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음악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세상의 아름다운 사물과 일들에 마음이 꺼들기 때문임을 알고, 스스로 눈을 찢어 맹인이 되었다. 그 후 더욱 정진하여 눈에 미혹되는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히 안정을 유지하면서 음악의 진수를 터득하였다. 그리하여 사광은 우주자연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도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고, 세상의 일들에 관해서도 길흉을 알게 되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襄公」 18년조 등 여러 곳에 사광이 국가 대사의 길흉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례가 나온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盜)와 적(賊)은 “오적(五賊)”과 “삼도(三盜)” 그리고 “도기(盜機)”라는 개념적 분류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천지자연에는 다섯 가지 훔칠 것(五賊 또는 운행법칙: 五行)이 있으니, 그것을 보는 자는 창성(昌盛)할 것이다. 다섯 가지 훔칠 것은 마음속에 있으니, 이것을 천지자연 속에서 베풀라. 그러면 우주의 만사(萬事)가 내 손 안에 있을 것이며, 만물의 생성·숙살변화가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sup>26)</sup> 도적(盜賊)은 실제로 사람이 천시(天時)·지리(地理)와 인간의 지혜·만물의 자원 등의 알맞은 시기(時機)를 살펴서 이용함으로서 그것들을 인간사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라와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쓰는 것이다. 세상의 일들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자원을 천지자연과 만물에서 알맞게 찾아 쓰는 것을 비유적으로 도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천시와 지리와 만물의 이로움을 필요에 따라 약탈하듯 훔쳐서 시기에 맞추어 쓰는 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훔치는 도적이다.<sup>27)</sup>

삼도(三盜)란 만물이 천지자연의 음양 기운을 훔쳐서 생성하고, 사람이 만물의 자원을 훔쳐서 생명과 몸을 양육하고, 만물이 사람의 지혜를 훔쳐서 번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천지자연과 만물과 사람이 각각 세 가지 도적의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천지자연의 정기(精氣)는 만물이 몰래 취하여 생성하는 것이며, 만물의 자원(資源)은 사람이 몰래 취하여 생하는 것이며, 사람의 심지(心志)는 만물이 몰래 취하여 개체를 이루는 것이다. 천지자연(天地)·만물·사람 셋이 서로 몰래 취하는 것이 이미 마땅하면, 하늘·땅·사람 셋이 비로소 편안할 수 있다.”<sup>28)</sup> 유가와 도가를 막론하고 고대 중국의 우주생성론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온갖 사물들은 모두 천지자연으로부터 원기를 부여받아 생성된다. 천지자연의 기운은 음과 양으로 운행의 형상이 나뉘며, 이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의 형상과 본질을 이룬다. 사

26) 『음부경』 「신선포일연도장」, “天有五賊, 見之者昌. 五賊在心, 施行於天. 宇宙在乎手, 萬物生乎身.”  
 27) 옛 주석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적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적을 천지자연의 운행법칙인 오행(五行)으로 보는 것이다. 즉 다섯가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오행이 상생 상극하는 운행 작용·법칙을 오적으로 본다. 이런 입장은 주희의 『음부경고이』가 대표적이다. 둘째, 오적을 명(命)·물(物)·시(時)·공(功)·신(神)의 다섯가지 운행 작용·법칙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장과(張果)의 『황제음부경주』가 대표적이다. 周禮·常秉義(編), 『黃帝陰符經集注』(中國戰劇出版社, 1996), 85, 111쪽.  
 28) 『음부경』 「부국안민연법장」, “天地, 萬物之盜. 萬物, 人之盜. 人, 萬物之盜. 三盜既宜, 三才既安.”

람이 만물의 자원을 훔쳐서 생명을 양육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오곡을 취하여 밥을 해먹고, 풀이나 누에와 면화를 취하여 옷을 해 입고, 나무와 돌과 흙을 취하여 집을 짓고 살며, 쇠붙이 등을 취하여 칼이나 병장기를 만들어 쓰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 자원을 약탈하듯 이용하여 인간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는 것이다.

요컨대, 도적이라는 말은 훔치는 것 또는 천지자연에서 훔치듯 이용하여 쓸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천지자연과 만물의 운행변화에서 때와 기미를 살펴 적절하게 이용할 것을 살피고, 그것들을 생성하고 숙살하며 부여하고 빼앗는 일을 도적에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사람도 만물이 훔쳐서 취하는 대상이 된다. 사람이 비록 만물의 자원을 취하여 생명을 양육하고 살아가지만,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와 색과 음식 등의 병든 욕망에 탐닉하게 되면 외부의 사물에 미혹되어 자신의 몸을 망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은 도리어 외부의 사물에 꺼들리어 자신의 바른 존재성을 잃게 되고, 나아가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지(心志)는 만물이 몰래 취하여 개체를 이루는 것이다”는 말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만물을 훔쳐서 이용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사물을 알맞게 이용할 뿐 그것을 다 고갈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만물들을 더욱 번성케 하여야만 사람도 지속적으로 만물을 이용하면서 살 수 있다. 만물이 천지자연에서 자양분을 훔쳐서 이용하고, 사람은 만물에서 생존의 자원을 훔쳐서 이용하며, 또 만물은 사람에게서 알맞은 쓰임을 훔쳐서 자체의 존재성을 지속해 간다. 이것이 삼도(三盜)라 할 수 있다. 삼도의 각 경우는 모두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생성과 숙살의 기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 『음부경』은 천지자연의 운행법칙을 살펴서 그것을 인간세상의 일처리에 적용하는 것을 도적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III. 맺음말

도교의 핵심경전 중의 하나인 『음부경』에서 “음부(陰符)”라는 두 글자의 뜻은 이천(李筌)의 주에 “음(陰)은 ‘몰래, 은밀히’의 뜻이다. 부(符)는 ‘부합한다’는 뜻이



다. 천지자연의 기미가 인간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미에 몰래 부합케 한다”<sup>29)</sup> 라고 하였다. 『음부경』의 기본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천지자연이 운행하며 보이는 생살(生殺)의 기의(機宜)에 부합하여, 알맞은 기미와 때를 장악하고 음양의 상생·상극 운행원리로써 모든 일을 대처해 가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와 인간세상의 이치가 근본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천도(天道)를 잘 살펴서 인간의 일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음부경』에서 말하는 의도이다. 인간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천지자연의 법칙을 알맞게 적용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이익을 풍족하게 늘려서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자연의 운행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기미와 알맞은 때를 알아채고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따라 살면, 사람의 일이 천지자연의 흐름에 부합하게 된다. 알맞은 때와 기미를 살펴서 움직이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아울러 증시하면서 그 이치를 몰래 취하여 현실의 구체적 행사(行事)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유가들이 말하는 인의(仁義)의 도덕규범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입장이다. 『음부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오히려 『노자』 78장에서 말하는 “정언약반(正言若反: 성인의 중정한 말씀은 세상의 주장과 정반대의 소리인 것 같다)”처럼 들린다. 인간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구체적 이치에서 천지자연의 근본원리를 미루어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인의에 기초한 어진 마음보다 도적과 같이 천지자연의 법칙을 훔치는 냉혹함이 먼저다.

실제로 『음부경』이 도적질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지만, 천지불인(天地不仁: 천지자연은 인간적 가치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의 가치중립적 법칙을 파악하고 인간세상을 경영하려면 인의에 매여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음부경』의 사유는 도가의 역설적 사유와 유사하다. 즉 인의를 기반으로 사유를 전개하는 윤리적 우주관<sup>30)</sup>으로서의 유가와 달리 『음부경』은 가치중립적이고 자연적인 우주관을 기초로 철저한 자연법칙에 입각한 세상보기를 시도한다. 사람은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에서 생성과 숙살의 원리와 기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인간세상을 경영하는데 적용하며, 상생과 상극의 법칙을 따라 계절의 운행을 읽어내어 알

29) 李筌, 『黃帝陰符經疏』, “陰闇也, 符合也. 天機闇合於行事之機, 故曰陰符.”

30) 유가는 우주의 본질을 “인(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우주관의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맞은 시기(時機)를 인간사에 응용해야 한다. 또한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고,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늘리며 편안케 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법칙을 은밀히 살피서 인간사의 경영에 부합하도록 하는 “음부(陰符)”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천지자연의 법칙을 가져다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늘리는데 도용하면 자신을 망치고 목숨을 잃게 된다. 『음부경』의 내용을 권모술수로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음부경』은 유가적인 인의에 입각한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 선악을 초월하는 여여(如如)한 무위자연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다. 무위자연이야말로 천지자연의 여여한 법칙의 모습이다.

이 글은 『음부경』의 사상을 고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음부경』의 사상에 포함된 『역전』의 요소들 그리고 50여종에 이르는 주석기들의 해석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다루지 못했다. 이런 주제들은 『음부경』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다른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陶潛, 『陶淵明集』.

董仲舒, 『春秋繁露』.

石和陽, 『陰符經註』(藏書閣MF35/8280).

李筌, 『黃帝陰符經疏』.

左丘明, 『春秋左氏傳』.

朱熹, 『陰符經考異』(藏書閣MF35/8280).

焦竑, 『老子翼, 莊子翼』.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2004.

張岱年/김백희(역), 『중국철학대강: 중국철학문제사(상)』. 서울: 까치글방, 1998.

Legge, James, *The Sacred Books of China: The texts of Taoism*, Vol. II. New York: Dover, 1962.

蕭登福, 「黃帝陰符經考證及探義」. 『黃帝陰符經今註今譯』. 臺北: 文津出版社, 1996.

王明, 「試論“陰符經”及其唯物主義思想」. 『道家和道教思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李申, 『陰符經의哲學』, 『陰符經全譯』, 中國: 巴蜀書社出版社, 1992.

周止禮·常秉義(編), 『黃帝陰符經集注』, 中國戰劇出版社, 1996.

### 국문 요약

전국시대의 저작으로 보이는 『음부경』은 도교의 경전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음부경』의 기본 메시지는 인간이 천지(天地)자연이 운행하며 보이는 생살(生殺)의 기의(機宜)에 부합하여, 알맞은 기미와 때를 장악하고 음양의 상생상극 운행원리로써 모든 일을 대처해 가는 것이다. 『음부경』의 핵심 개념은 천도(天道), 생살(生殺), 시기(時機), 복장(伏藏), 도적(盜賊) 등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온갖 사물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변화운행을 지속한다. 사람들이 자연의 운행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기미와 알맞은 때를 알아채고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따라 살면, 사람의 일이 천지자연의 흐름에 부합하게 된다. 알맞은 때와 기미를 살피서 움직이되, 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아울러 중시하면서 그 이치를 몰래 취하여 현실의 구체적 행사(行事)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지자연의 법칙을 은밀히 살피서 인간사의 경영에 부합하도록 하는 “음부(陰符)”의 뜻이다. 사람은 바로 천지자연의 운행 법칙 속에서 때와 기미를 살피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생성과 속살의 이치를 장악해 살아야 한다.

● 투고일 : 2007. 4. 11.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음부(陰符: Yinfu), 천도(天道: Tiendao), 생살(生殺: Becoming and Killing), 시기(時機: Timing and Secret signs), 복장(伏藏: Hiding), 도적(盜賊: Stealing), 여여(如如: Such-and-such suchness).